



numbers
vol. 300

한국인의 기부 현주소

50대, 교회 헌금액 가장 높아!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① 한국의 영향력 있는 인물
- ②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

2025. 8. 26.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넘버즈」 구독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우리 연구소에서 매주 보내드리는 주간 리포트 「넘버즈」가 드디어 300호를 맞이했습니다. 먼저, 이 긴 여정에 함께해 주신 26,000여 명의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없었다면 오늘의 300호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처음 「넘버즈」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래도록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교회와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통계와 흐름들을 나누며, 목회자와 교회가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역을 더 지혜롭게 해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6,000명이 넘는 구독자 여러분이 이 길에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큰 힘이 되고,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버즈」는 단순한 데이터 모음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더 건강하게 서 나가도록 돕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고자 했습니다. 목회 현장의 치열한 고민 속에서, 숫자와 사실이 때로는 뼈아프게 다가올 때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통찰을 발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이 사명을 잊지 않고, 더 정직하고 유익한 자료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 나아가도록 작은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끝으로, 함께 걸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의 400호, 500호를 향한 여정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8월 26일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지용근드림

50대, 교회 헌금액 가장 높아!

나눔/기부는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중요한 가치이다. 한국 사회의 기부 문화는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시대의 변화 속에서 그 모습 또한 다양하게 변모하고 있다. 국내 기부금 총액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개인의 기부 참여율과 대중의 기부 문화 신뢰도는 감소하는 등 복합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이번 넘버즈는 기부 관련 최신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기부 현주소'를 진단하고자 한다. 기부 총액과 유형의 변화 추이, 개인의 기부 동기와 태도, 기부 문화에 대한 국민적 평가와 개선 과제를 다각도로 조명했다. 나아가 유산 기부나 종교 단체 헌금 같은 특별한 기부 형태도 함께 살펴보았다.

이번 <넘버즈 300호>가 한국 사회의 나눔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기부 생태계 조성에 의미있는 통찰을 제공하길 기대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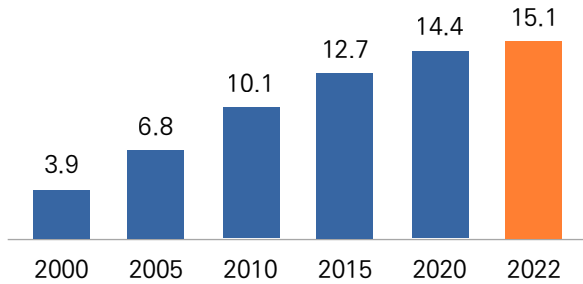
01

[기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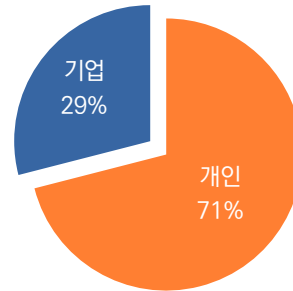
국내 기부금 총액, 200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

- 우리나라 기부금 총액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 기준 15.1조 원으로 집계됐다.
- 기부 주체별 비중을 보면 개인 71%, 기업 29%로, 개인 기부가 주를 이뤘다.

[그림] 국내 연도별 기부 총액 추이 (2000~2022, 조 원)



[그림] 기부금 비중 : 개인 vs 기업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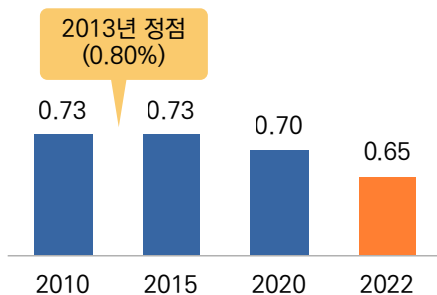


※출처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기빙코리아 2024 자료집, 2024.1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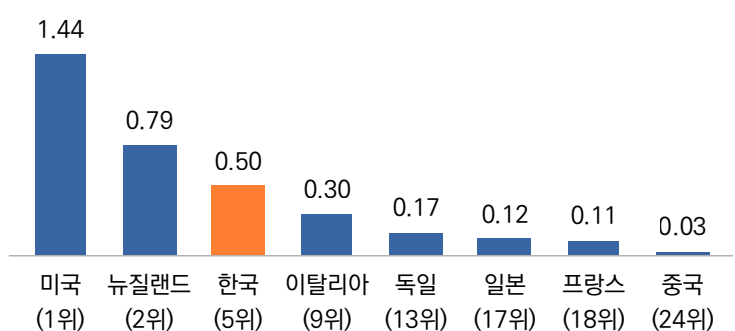
한국의 기부 수준, GDP 대비 0.65%

- 한국의 GDP 대비 기부금 비율은 2022년 기준 0.65%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정점(0.8%)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앞에서 총 기부금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부금 증가세가 GDP 증가세에 못미치는 것을 시사한다.
- 주요 국가별 국제 비교(2016년, 24개국 대상) 자료를 보면, 한국은 0.50%로 5위에 위치했으며, 미국(1위, 1.44%)과 뉴질랜드(2위, 0.79%)보다는 낮지만 일본(0.12%), 중국(0.03%) 등 인근 아시아 국가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그림] 한국의 GDP 대비 기부금 비율



[그림] 주요 국가별 GDP 대비 기부금 비율 (2016, 24개국 대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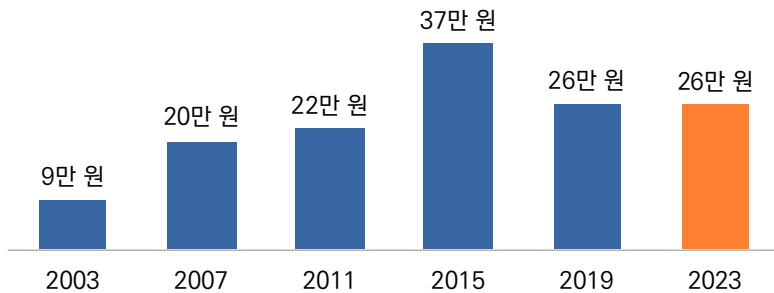


※출처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기빙코리아 2024 자료집, 2024.10.25.

개인 평균 기부금, 2015년 정점 이후 감소세!

- 개인(기부자) 1인당 평균 기부 금액은 2003년 9만 원에서 2015년 37만 원으로 꾸준히 상승했으나,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23년에는 26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 이는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지만, 최근에는 개인 기부 규모가 다소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개인(기부자) 평균 기부 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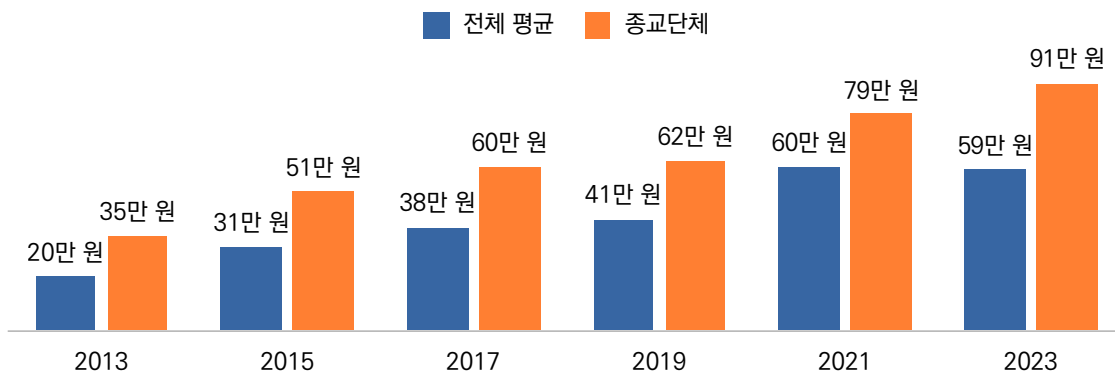


※출처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기빙코리아 2024 자료집, 2024.10.25.

국민 1인당 연간 평균 현금 기부 59만 원, 종교단체 기부 91만 원!

- 2023년 기준 국민 1인당 평균 현금 기부액(기부자 기준)은 59만 원으로 나타났고, 종교단체 기부액은 91만 원으로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그림] 국민 1인당 연간 평균 현금 기부액: 전체 vs 종교단체 (기부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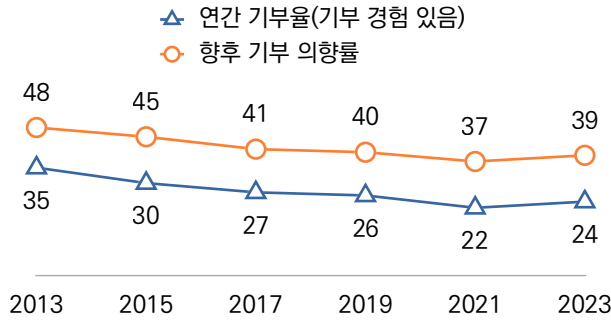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2023년 사회조사 결과, 2023.11.08.

02

[기부 참여와 태도] 연간 기부 참여, 4050세대가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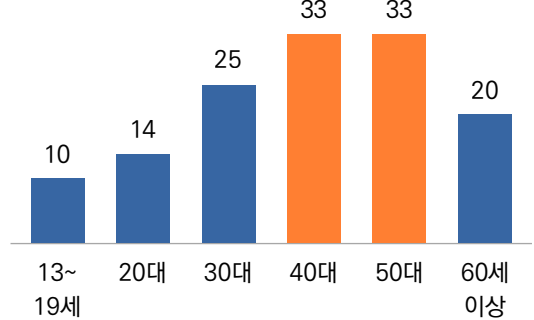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연간 기부율'과 '향후 기부 의향률'은 2013년 이후 지난 10년간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3년 들어 소폭 반등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 연령별 기부 참여를 보면 40~50대가 각각 33%로 가장 높아, 기부를 주도하는 세대로 나타났다.

[그림] 연간 기부율과 향후 기부 의향률 (13세 이상, %)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2023년 사회조사 결과, 2023.1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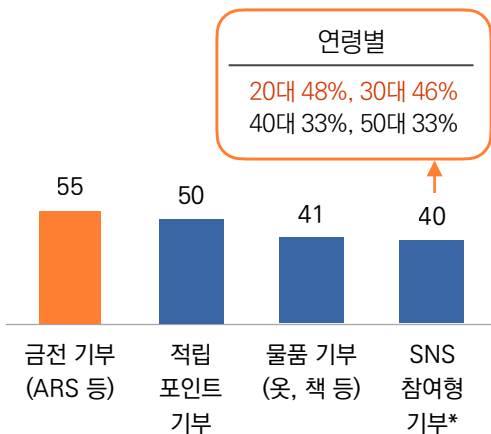
[그림] 연령별 연간 기부율 (13세 이상, %)



주류는 '금전/포인트 기부', SNS 기부는 MZ세대 중심!

- 기부 참여 유형으로는 '금전 기부'(55%)와 '포인트 기부'(50%)가 가장 많이 활용되었으며, 'SNS 참여형 기부'는 2030세대(MZ세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점이 특징적이다.
- 기부에 참여한 자들의 기부 동기를 살펴보면, '시민으로서 해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해서'(32%)가 가장 높았고, 이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28%, '남을 돕는 것이 행복해서' 21%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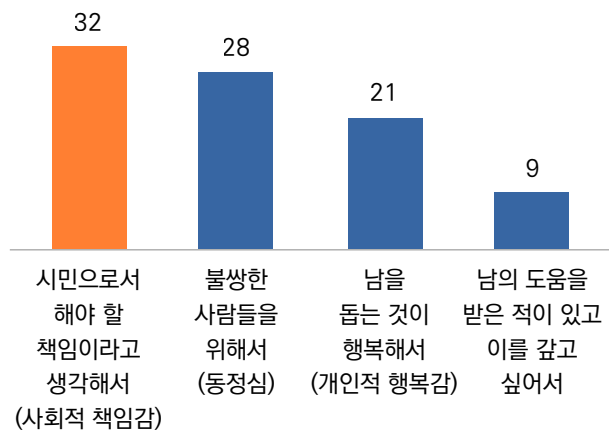
[그림] 기부 참여 유형
(기부 경험자, 중복응답, 상위 4개, %)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4 기부 경험 및 기부 문화 관련 인식 조사, 2025.01.(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4.12.05.~12.09.)

*SNS 참여형 기부는 소셜 미디어(SNS) 플랫폼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기부 활동을 의미하며, 클릭/공유 기부, 챌린지 기부, 콘텐츠 제작 기부, 댓글 참여 기부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음.

[그림] 기부 동기 (기부 경험자, 상위 4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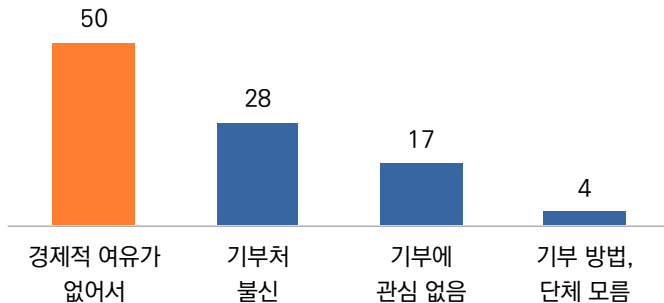


※출처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기빙코리아 2024 자료집, 2024.10.25.

기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절반은 ‘경제적 여유 부족’!

- 기부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50%)가 절반을 차지하며 가장 높았다. 이어 기부처에 대한 불신(28%), 기부 자체에 대한 무관심(17%) 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기부 방법이나 단체를 모른다는 응답은 4%에 불과했다.

[그림] 기부하지 않는 이유 (기부 미참여자, 상위 4개, %)



※출처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기빙코리아 2024 자료집, 2024.1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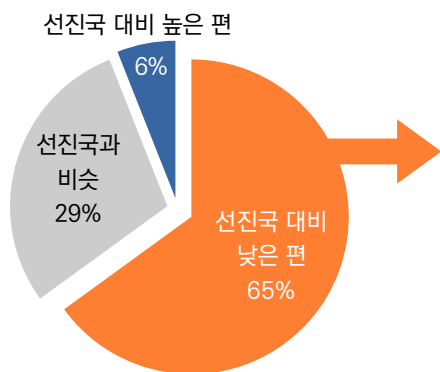
03

[기부 문화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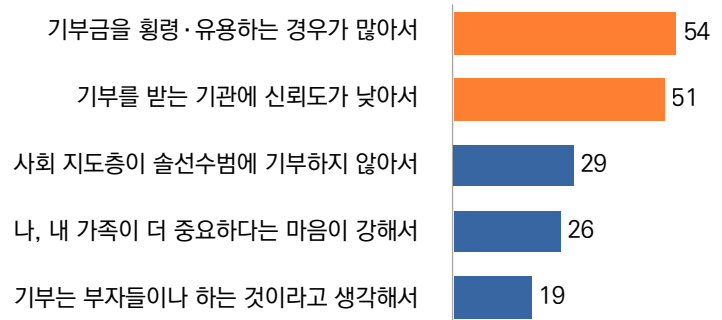
국민들은 기부기관의 횡령/유용 등 요인으로 기부 문화 저평가

- 한국의 기부 문화 수준에 대해 국민 65%가 ‘선진국 대비 낮은 편’이라고 평가했으며, ‘높은 편’이라는 응답은 6%에 불과했다.
- 기부 문화 저평가 이유로는 ‘기부금 횡령·유용 사례가 많아서’(54%)와 ‘기부 기관의 신뢰도가 낮아서’(51%)가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그림] 우리나라 기부 문화 수준 평가 (2024)



[그림] 우리나라 기부 문화 저평가 이유 (2024, 기부 문화 수준 선진국 대비 낮다고 응답한 자, 중복응답, 상위 5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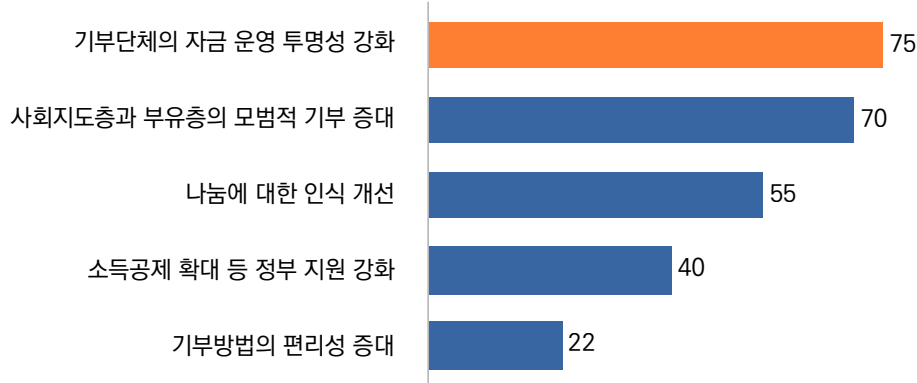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4 기부 경험 및 기부 문화 관련 인식 조사, 2025.01.(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4.12.05.~12.09.)

기부 문화 확산 요건, ‘운영 투명성’과 ‘모범적 기부’가 핵심

-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기부단체의 자금 운영 투명성 강화’(75%)와 ‘사회지도층·부유층의 모범적 기부 확대’(70%)를 꼽았다. 이어 나눔 인식 개선(55%), 정부 지원 강화(40%) 등이 뒤를 이었다.

[그림]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2024, 13세 이상, 복수응답, 상위 5개, %)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2023년 사회조사 결과, 2023.11.08.

04

[유산기부와 현금 현황]

유산 기부, 전체 기부금의 1.4%...의향률은 감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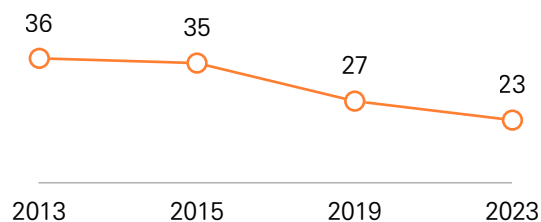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유산 기부액은 2022년 2,165억 원으로, 전체 기부금의 1.4% 수준을 차지했다.
- 한편, 국민들(만 13세 이상)의 유산 기부에 대한 의향률은 2013년 36%에서 2023년 23%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그림] 유산 기부액 (2022)



※출처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기빙코리아 2024 자료집, 2024.10.25.

[그림] 유산 기부 의향률 (만 13세 이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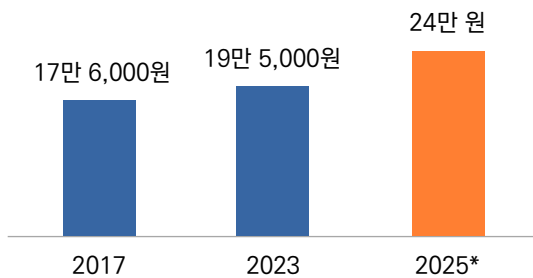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2023년 사회조사 결과, 2023.1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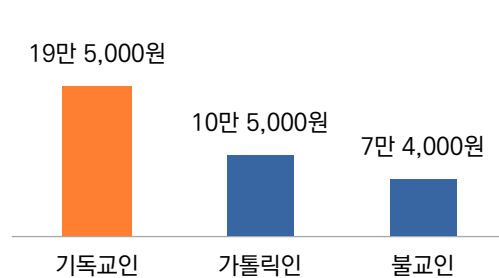
종교별 월 평균 헌금액, 기독교 > 가톨릭 > 불교 순!

- 이번에는 한국교회의 헌금실태에 대해 알아보겠다.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2023(한목협)에 따르면, 교회 출석 기독교인의 월 평균 헌금액은 2017년 17만 6,000원에서 2023년 19만 5,000원으로 소폭 상승했으며, 2025년(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에서는 24만 원까지 높아졌다.
- 종교별로는 기독교인이 19만 5,0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톨릭인은 10만 5,000원, 불교인은 7만 4,000원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월 평균 헌금액 (교회 출석 기독교인)



[그림] 종교별 월 평균 헌금액 (2023, 종교기관 출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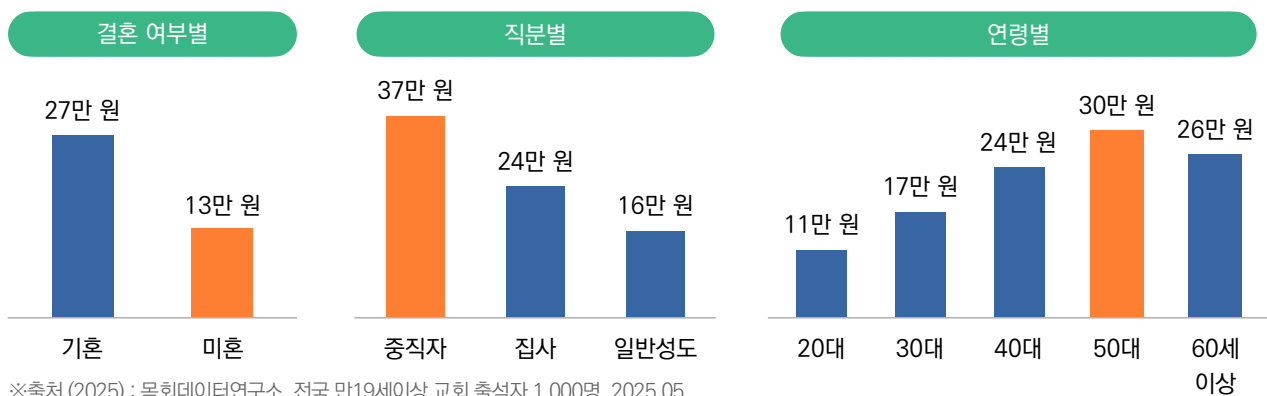
※출처 (2017, 2023)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2023.04.

*출처 (2025) : 목회데이터연구소, 전국 만19세이상 교회 출석자 1,000명, 2025.05.

50대, 교회 헌금액 가장 높아!

- 교회 출석 기독교인의 월 평균 헌금액을 결혼여부·직분별로 살펴보면, 결혼 여부에 따라 기혼자는 27만 원으로 미혼(13만 원)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또한 직분별로는 중직자가 38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집사 24만 원, 일반성도 16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로는 50대의 헌금액이 가장 높았다.

[그림] 결혼여부/직분/연령별 헌금액 비교 (2025, 교회 출석 기독교인)



※출처 (2025) : 목회데이터연구소, 전국 만19세이상 교회 출석자 1,000명, 2025.05.

이번호 요약

1. 국민 1인당 연간 평균 현금 기부 59만 원, 종교단체 기부 91만 원!

- 국민 1인당 평균 현금 기부액(2023, 기부자 기준)은 59만 원으로 나타났고, 종교단체 기부액은 91만 원으로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2. 연간 기부 참여, 4050세대가 주도!

- 우리나라 국민(13세 이상)의 연간 기부율은 2023년 24%였는데, 이를 연령별로 보면 40·50대가 각각 33%로 가장 높아, 기부를 주도하는 세대로 나타났다.

3. 교회 헌금은 50대가 주도!

- 교회 출석 기독교인의 월 평균 교회 헌금액을 결혼여부·직분·연령별로 살펴보면, 우선 기혼자(27만 원)가 미혼자(12만 원)보다 2배 이상 높았고, 직분별로는 중직자가 38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또, 연령별로는 50대의 헌금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서적] 깨끗한 부자 가난한 성자: 성경에서 찾은 자족, 향유, 나눔의 원리 (양낙홍 저, IVP)

관련 성경 구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7)

목회 적용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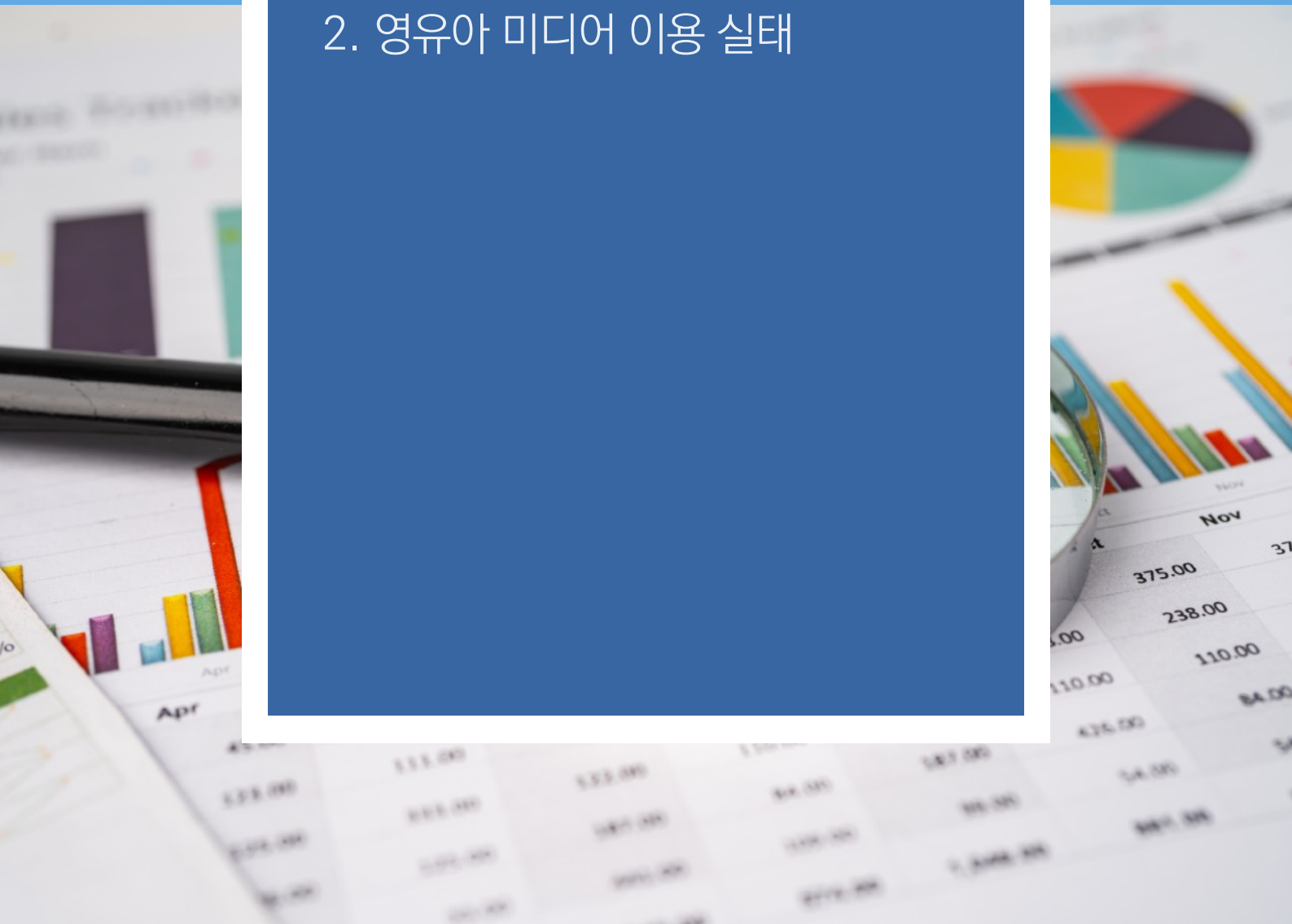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부금 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개인 기부자의 평균 기부 금액은 2015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국민 1인당 평균 현금 기부액에서 종교단체 기부가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하며, 기혼자와 중직자의 교회 헌금액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국민의 65%가 한국 기부 문화 수준을 '선진국 대비 낮다'고 평가하며, 그 이유로 '기부금 횡령·유용 사례'와 '기부 기관의 낮은 신뢰도'를 꼽은 것은 교회가 직면한 과제를 보여준다. 실제 기윤실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2023년)에서 교회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으로 '재정투명성'이 2위권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교회 밖에서도 교회의 재정 사용에 대해 주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목회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교회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회 내부적으로 헌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공개하고, 성도들이 기부 과정과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교회의 대사회적 이미지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교회 만족도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다.

다음으로, 나눔의 영적 의미를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강조해야 한다. 기부가 단순히 돈을 내는 행위를 넘어, 청지기 정신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성숙한 신앙 행위임을 설교와 교육을 통해 성도들에게 깊이 각인시켜야 한다. 특히 중직자, 50대층이 헌금의 주축을 이루는 만큼, 이들의 나눔 리더십을 독려하고, 이들을 통해 보다 젊은 세대들이 나눔 행위를 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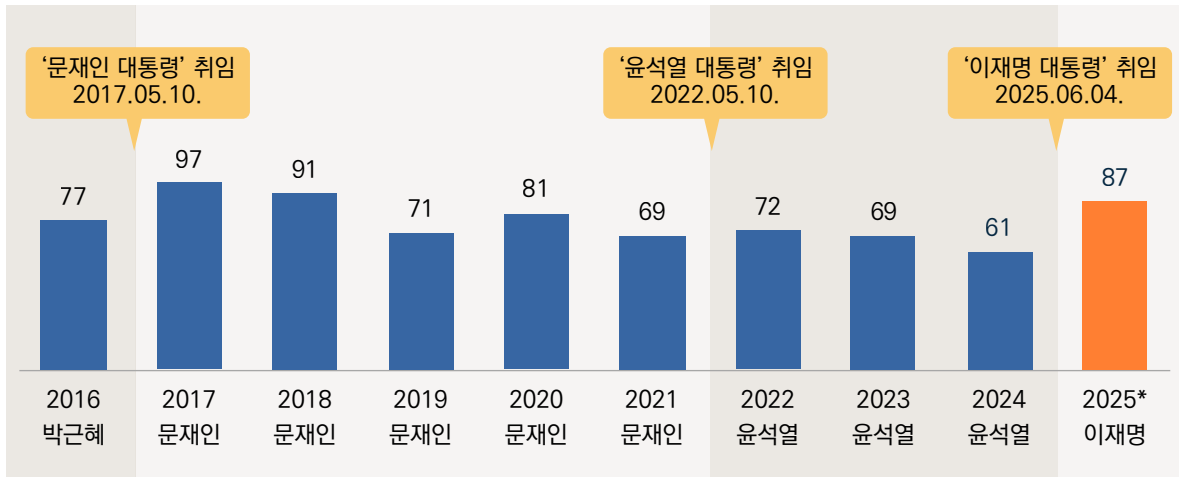




[한국의 영향력 있는 인물] 지난 10년간 한국 최고 영향력 1위는 ‘대통령’!

- 시사저널은 매년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을 조사해 오고 있다. 지난 10년간 (2016~2025)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힌 1위를 살펴보면, 해마다 해당 연도의 재임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 2025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87%로 가장 높았고, 지난 10년 전체를 통틀어서는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97%)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림]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추이 (일반국민, 각 연도별 1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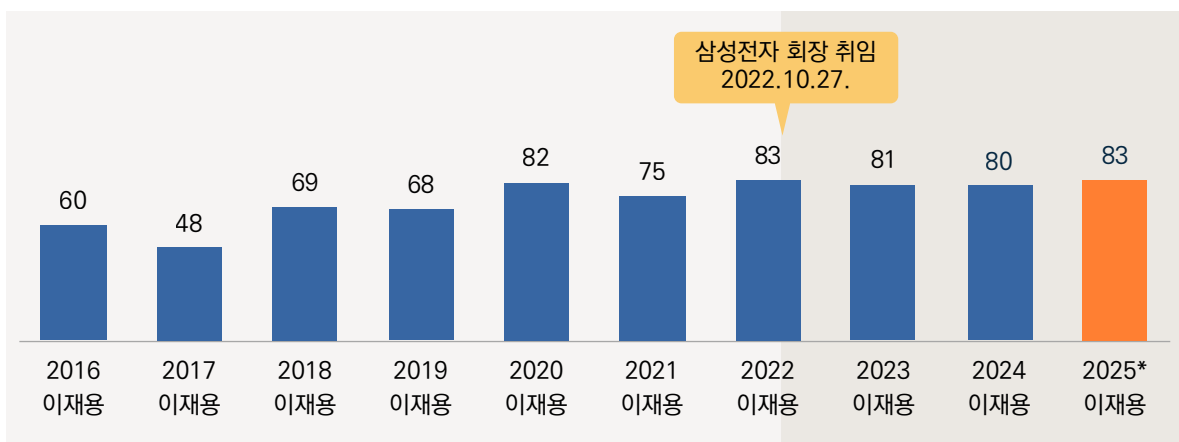
※출처 : 시사저널,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각 연도별 기사 참조) (<https://www.sisajournal.com/moveKorea/?type=move2024>)

*2025년 출처 : 시사저널(1870호), 지금은 '정치의 시간'...정권 교체가 바꾼 대한민국 권력 지도, 2025.08.18.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42731>)

10년 연속 경제인 영향력 1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인으로는 2025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83%로 압도적이었으며, 이재용 회장은 2016년부터 10년 연속 부동의 1위를 기록했다.

[그림]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인 또는 경제관료 추이 (일반국민, 각 연도별 1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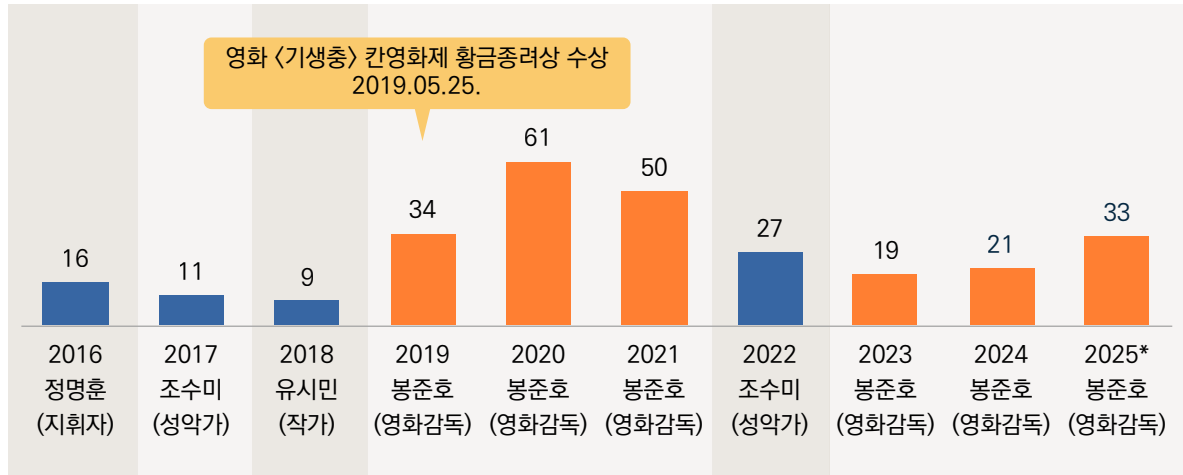
※출처 : 시사저널,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각 연도별 기사 참조) (<https://www.sisajournal.com/moveKorea/?type=move2024>)

*2025년 출처 : 시사저널(1870호), '사법 족쇄' 풀 이재용, 10년 연속 부동의 1위, 2025.08.18.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42668>)

문화예술계 영향력 1위, 봉준호 감독 독주!

-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2025년 '봉준호 감독'(33%)이 1위를 차지했다. 봉 감독은 2016년 조사 이래 가장 많은 횟수(10번 중 6회)와 가장 높은 비율(2020년 61%)로 1위를 기록하며, 지난 10년간 한국 문화예술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그림] 가장 영향력 있는 문화예술인 추이 (일반국민, 각 연도별 1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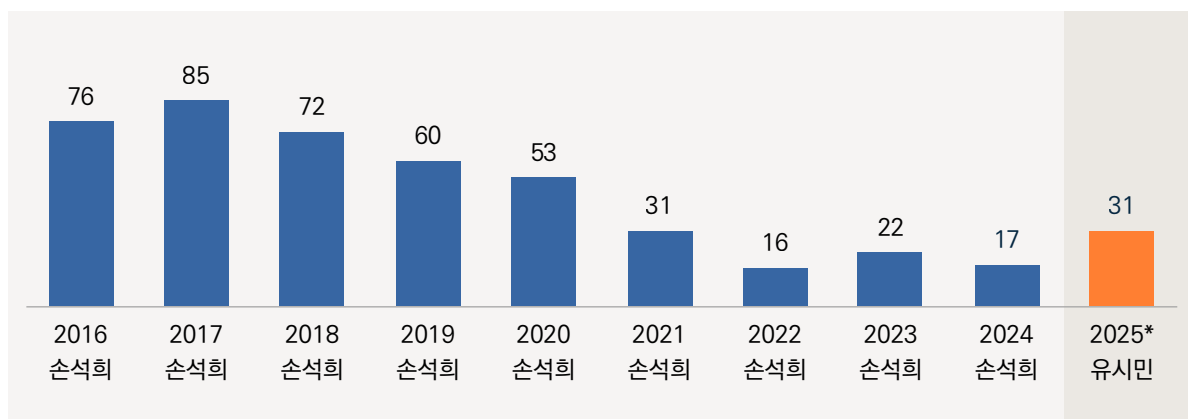
※출처 : 시사저널,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각 연도별 기사 참조) (<https://www.sisajournal.com/moveKorea/?type=move2024>)

*2025년 출처 : 시사저널(1870호), 멈추지 않는 봉준호의 시네마, 다음 행선지는 '심해', 2025.08.18.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42659>)

언론·사회 분야, 손석희에서 유시민으로!

- 언론·사회 분야에서는 2025년 유시민 작가(31%)가 1위였다. 지난 10년 동안은 손석희 전 JTBC 사장이 부동의 1위를 지켜왔으나, 영향력은 2017년 85% 정점을 기록한 뒤 점차 하락세를 보였다. 결국 2025년에는 유시민 작가가 새롭게 1위에 올랐다.

[그림]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회인 추이 (일반국민, 각 연도별 1위, %)



※출처 : 시사저널,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각 연도별 기사 참조) (<https://www.sisajournal.com/moveKorea/?type=move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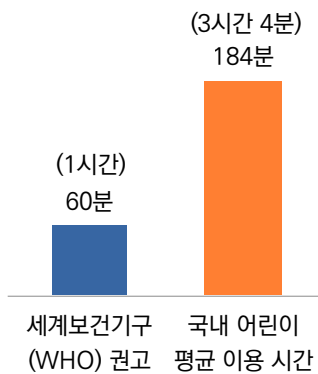
*2025년 출처 : 시사저널(1870호), 유시민 선두 나서고, 이국종 바짝 추격, 2025.08.18.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425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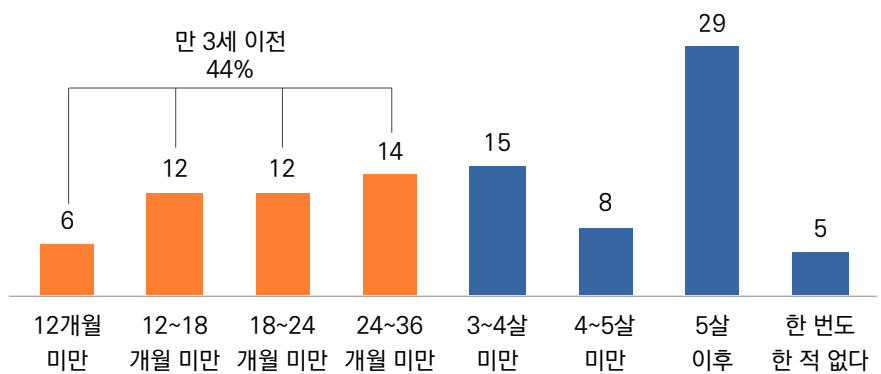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 빨라지는 스마트폰 첫 경험, 3세 이전 44%에 달해

- 최근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및 미디어 중독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3 어린이 미디어 이용 조사' 결과를 통해 그 실태를 살펴본다.
- 우리나라 어린이의 하루 평균 미디어 이용 시간은 3시간 4분(만 3~4세 기준)으로,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1시간, 만 2~4세)의 3배 수준에 달한다.
- 한편, 스마트폰을 처음 접한 연령이 3세 미만인 경우도 44%에 달해, 영유아의 미디어 노출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하루 평균 미디어 이용 시간*



[그림] 스마트폰 이용 시작 시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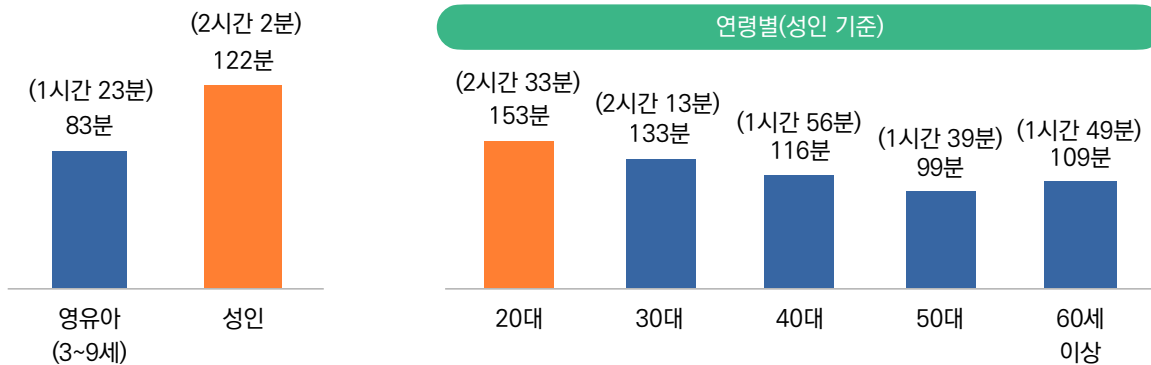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3 어린이 미디어 이용 조사 보고서, 2023.12.31.(전국 만 3~9세 어린이 보호자 2,675명, 2023.10.26.~12.08.)

*세계보건기구는 만 2~4세의 미디어 이용 시간이 하루 1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함, 국내 어린이는 만 3~4세 대상임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성인 하루 평균 2시간, 영유아도 1시간 이상 '유튜브 시청'!

- 이번에는 유튜브 이용자 대상으로 하루 평균 유튜브 이용시간을 살펴본다. 영유아(3~9세)는 하루 평균 83분(1시간 23분)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인 평균(2시간 2분)의 약 2/3 수준에 해당한다.
- 연령별(성인 기준)로는 2030세대의 유튜브 이용시간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연령별 하루 평균 유튜브 이용시간 (유튜브 이용자)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3 어린이 미디어 이용 조사 보고서, 2023.12.31.(전국 만 3~9세 어린이 보호자 2,675명, 2023.10.26.~12.08.)

*20대 이상 성인 조사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기아대책/월드비전,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일반국민 조사), 2024.09.(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4.05.20.~05.27.)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162호 \(2025년 8월 3주\)](#)

- 국정운영 평가, 국정 비전 및 가치 평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강화 찬반

사회 일반

["성인 8.2%, 일상에서 기본적 디지털기기 조작도 어려워"](#)

연합뉴스_2025.8.19.

[사랑이 식으면 더 무섭다...살인사건 3건 중 1건 '부부·연인관계'](#)

매일경제_2025.8.20.

[출생률 떨어지는데, 치솟는 분유·기저귀값 왜?](#)

중앙일보_2025.8.19.

["챗GPT, 나 지금 우울해" AI에 심리 상담 괜찮을까요?](#)

한겨레_2025.8.19.

[외국인 관광객 2000만 시대... 바가지 요금은 그만!](#)

조선일보_2025.8.25.

['10억원 넘는 코인 부자' 국내에만 1만명...1인당 평균 22억원 보유](#)

조선일보_2025.8.25.

[\[2025년 신체건강 인식조사\] 신체건강 자가평가와 건강 관리 노력](#)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5.8.19.

[\[기획\] 디지털 유산 관련 인식](#)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5.8.19.

노인

[증가하는 중장년 1인 가구, 공동체 기댈 창구 늘려야](#)

주간조선_2025.8.20.

[60~64세 절반 연금소득 '제로'...65세 이상은 생계비 절반 수준\(종합\)](#)

연합뉴스_2025.8.25.

[노인 10명 중 9명 받는 연금, '월평균 69만원'](#)

주간조선_2025.8.26.

경제 · 기업

[\[Today's PICK\] AI, 업무에 쓰는 직장인 미국 27%, 한국은 52%](#)

중앙일보_2025.8.19.

[신용 945점이세요? 평균 이하시네요](#)

중앙일보_2025.8.19.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고령 노동자 낮은 생산성, 한국 경제성장 둔화 주요인”](#)

국민일보_2025.8.21.

[이탈하는 MZ 공무원, 원인은 ‘임금’…시군구 공무원 65% “낮은 임금으로 이직 고려”](#)

동아일보_2025.8.18.

[“그 인간이랑 일 못하겠어요”...직장인 80%, 오피스 빌런에게 당했다](#)

매일경제_2025.8.17.

[소비쿠폰 한 달], (연합뉴스)

[① 식당과 시장 소상공인·편의점 매출 늘었다](#) _2025.8.24.

[② 골목 활기 반짝 효과 우려도…후속대책 대기](#) _2025.8.24.

국제 · 환경

[일본 자본가의 ‘일 만족도’ 36%로 가장 낮아](#)

주간동아_2025.8.23.

건강

[마라톤 등 ‘극한 달리기’ 애호가, 대장암 위험 일반인의 3배](#)

동아일보_2025.8.20.

[저출생 고령화에…정부 현물 복지 중 의료비 비중 절반 넘어서](#)

한겨레_2025.8.18.

기독교 · 종교

[80대 “배달앱 배웠더니 되네”… 디지털 격차 메우는 이 교회](#)

국민일보_2025.8.21.

[예장통합 女총대 역대 최다지만 3.8%… 확대될까](#)

국민일보_2025.8.20.

[이주민과 동행하는 교회], (국민일보)

[〈상〉 이주노동자 선교 물꼬 튼 교회](#) _2025.8.19.

[〈하〉 사역의 과제와 미래](#) _2025.8.21.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원로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숭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주)디엔텍세븐컨설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정책연구소, 라잇나우미디어,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치움,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후원 방법 (국내)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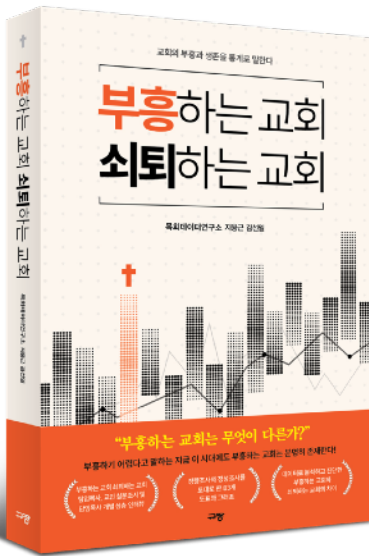
후원 방법 (해외)

외국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출간

목회데이터연구소는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를 출간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담임목사, 성도를 총 1,320명 조사하여 각각의 특징을 통계적으로 규명하였습니다.
(책 구입 문의 : 02-322-0726, 유명민 간사)

책 구입 안내

파주 조이하우스 자원봉사 참여

저희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지난 7월 31일 파주에 위치한 조이하우스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에서 태어난 아프리카 노동자 가정의 아이들을 돌봐주는 데이케어 센터입니다.

